

유학의 ‘충서忠愬’ 와 기독교의 ‘사랑’ , 그 교육적 만남

신창호(경희대, 교육대학원)

【요약】

본 발표는 유학의 핵심 내용인 충서忠愬와 기독교의 사랑을 교육학적으로 융합하려는 시도이다. 유학은 ‘자기 충실과 타자에 대한 배려’ 라는 충서의 길을 임무로 하는 수기치인修己治人の 학문이고, 기독교는 ‘믿음-소망-사랑’ 을 근본으로 하되 사랑을 실천하는 큰 가르침이다. 유학의 충서와 기독교의 사랑은 교육을 통해 일상日常에 구현된다.

한국 전통 사회(특히 조선 시대 이후로)에서 유학은 삶의 교육철학으로서 인간의 생활을 조절하는 하나의 기준이었다. 조그만 글방에서 성균관에 이르기까지 배우는 이들의 주요 사명은 오륜五倫을 정점으로 자기 충실과 타자에 대한 배려를 몸에 익히는 작업이었다. 그것은 21세기를 살아가는 현재의 우리 의식에도 자리하고 있다. 그런 사유와 기독교의 사랑이 결합한다면 새로운 우리 의식의 근저를 형성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교회는 예배를 드리는 곳인 동시에 ‘교육의 집’ 으로서 개인과 공동체를 향해 자기 충실과 타자 배려를 가르치고 실천하는 장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의 진리를 양식으로, 스스로에게 충실하고 타인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가운데 사랑의 싹이 돋아 나온다.

본 발표에서는 충서의 개념을 소개하고, 그것이 기독교적 사랑의 실천과 결코 다르지 않음을 보여주려고 한다. 신앙적 차원에서만 본다면, 유교와 기독교는 엄연히 다르다. 그러나 교육적 차원에서는 충서와 사랑의 실천은 온전하게 맞닿아 있다. 인간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나와 타자와의 상극相兪를 상생相生과 윈-윈win-win 정신으로 구현하는 작업이다.

1. 교육의 의미 맥락과 기독교 교육

최근 학교교육schooling에 대한 반성이 다각도로 진행 중이다. 이는 사회의 급격한 변화와 이에 따른 학교교육의 한계, 평생교육lifelong education의 등장 등 ‘교육’ 에 대한 새로운 개념 정립을 요청하는 목소리이기도 하다. 즉 근대 공교육이 지닌 긍정적 요소에도 불구하고 부정적 요인들에 대한 교육적 회의이다. 그렇다면 지식과 정보로 통칭되는 현대 사회에서 교육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교육 자체가 하나의 목적이자 본질인가? 아니면 삶의 수단에 불과한가?

유학은 교육을 삶과 동일시하며 일상의 충실을 기본으로 인식한다. 삶의 철학으로서 교육은 교敎[가르침], 학學[배움], 회誨[인도함], 훈訓[계도함], 예禮[질서화], 교학敎學[가르치고 배움], 교화敎化[가르쳐 인간됨], 학문學問[배우고 물음], 강습講習[읽고 익힘], 학습學習[배우고 익힘], 수신修身[몸을 닦음], 격몽擊蒙[어리석음을 깨우침] 등의 의미로 많이 쓰인다. 이는 상황에 따라 교육이 다양하게 이해되고 실천된다는 말이자, 삶의 여러 모습에서 인간 행위가 어떠한 지 보여준다.

교육敎育이라는 말이 구체적으로 문헌에 보이는 것은 「맹자孟子」에서이다. 맹자는 군자君子[교육받은 사람, 건전한 인격자, 된 사람]의 세 가지 즐거움을 제시하였는데, 세 번째 즐거움에 교육이 자리한다. 첫 번째 즐거움은 ‘부모가 모두 살아 있고 형제가 특별한 사고 없이 지내는 일’ 이고, 두 번째 즐거움은 ‘하늘에 부끄럽지 않으며 세상 사람에게 부끄럽지 않게 사는 일’ 이며, 세 번째 즐거움은 ‘세상의 영재를 얻어 교육하는 일’ 이다.

맹자는 인생에서 주요한 의미를 지닌 즐거움을 논의하면서 그 가운데 하나로 ‘교육’의 문제를 언급했다. 이때 교육이 무슨 내용을 담고 있는 지 어떤 의미인지 명확하지 않다. 의미를 유추해 보면, 부모형제에 관한 일은 하늘의 운명에 달린 일이고, 부끄럽지 않게 사는 일은 자기 자신의 수양과 노력에 관한 일이며, 천하의 영재를 얻어서 교육하는 일은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배려하는 일이다. 이런 측면에서 맹자가 말한 교육은 ‘선각자先覺者가 수양으로 터득한 건전한 인간의 길을 사회로 환원하여 후각자後覺者에게 베푸는 행위’를 의미한다. 즉 시혜 행위, 사회에 기여하는 봉사로서의 교육이다. 그 내용의 핵심은 도덕적 자각을 일깨워 주는 도道の 전수로, 계발·계몽적 측면이 강하다. 다시 말해 삶의 즐거움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 지에 대해 가르치고 기르는 ‘교양’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문자적으로 敎育과 育育은 어떤 의미일까? 「설문해자說文解字」에는 “교는 위에서 베푸는 것인 동시에 아래에서 본받는 것이다.”라고 했다. 즉 교는 베푸는 자[교사]와 받는 자[학생] 사이에 이루어지는 행위이다. ‘베풀다’는 의미는 일상의 바람직한 도리를 전하며, 인간 삶의 과업을 깨우쳐 주며, 의혹을 풀어주는 일이다. 그리고 학생이 ‘받는다’는 의미는 베푸는 일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즉 법을 본받고, 모방하며, 학습하는 일이다. 이렇게 볼 때, 교의 의미는 시교자施教者와 수교자受教者 사이의 상호 작용의 과정이고, 먼저 깨달은 사람이 나중에 깨달을 사람을 깨우치는 작업이며, 선을 권장하여 그것의 회복을 꾀하는 작업이다. 그리고 “육은 어린 아이를 길러 착하게 만드는 일이다.”라고 했다. 여기서 ‘어린 아이’는 자식이나 아동·학생을 의미하고, ‘기른다’는 의미는 배양, 수양, 도야를 말한다. 또한 ‘착하게 만드는 일’은 착하게 유도하여 기질을 변화시키고 아름다운 인간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교육은 교사의 학생에 대한 시혜, 착함으로의 인도, 본받음과 깨달음이다. 즉 정신적 감화 작용, 악한 기질의 교정, 건전한 인격의 배양으로 정리할 수 있다. 그것의 핵심은 자기 충실과 타인에 대한 배려인 충서忠恕이다.

그런데 기독교 교육은 철저히 성서聖書에 기초하여 성서가 가르쳐 주는 인간 이해와 인간상을 근본으로 한다. 그러기에 언제나 이미 죄인인 인간을 주님의 훈련과 훈계 안에서 회개시켜, ‘구원받은 인간·하나님의 형상·영화롭게 된 인간’을 양육하는 작업이다. 그것은 복음의 교육이자, 인도, 사랑, 훈련, 경고에 의해 이루어지며, 회개와 쇄신, 중생과 화해, 구원과 영화를 기본 개념으로 한다. 이 지점에서 유학과 기독교의 교육 주체가 다름을 인식해야 한다. 전통 유학은 인간이 인간을 교육한다. 하지만 기독교는 오직 하나님만이 홀로 교회와 인간을 통하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교육한다. 그 구원의 핵심에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인간이 자리한다. 따라서 기독교 교육은 ‘사랑’을 주축으로 진행된다.

기독교의 ‘사랑’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라는 측면에서, 사람 사이의 관계망에서 이루어지는 유학의 충서와는 거리가 있다. 그러나 그 내용상, 인간의 자기성찰과 희망을 갈구하는 측면에서는 동일하다고 판단한다.

2. 교육, 충서와 사랑의 실천

인간은 1차적으로 생존이라는 삶의 근간을 고수해야 한다. 그것은 건강한 육체와 정신을 지속하는 일이다. 유학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건전한 관계망인 충서를 통해, 기독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 구원을 통해 생활을 유지하려고 한다. 그 삶의 중심에 교육이 존재한다.

유네스코 21세기 세계교육위원회 종합보고서는 21세기를 준비하는 교육의 원리로서 다음과 같은 네 개의 기둥을 제시하였다.

- 첫째, 알기 위한 교육 learning to know
- 둘째, 행동하기 위한 교육 learning to do
- 셋째, 존재하기 위한 교육 learning to be
- 넷째, 함께 살기 위한 교육 learning to live together

이중에서도 함께 살기 위한,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교육을 매우 중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함께

산다는 것, 더불어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그것이 유학의 충서나 기독교의 사랑이 아닐까?

유학의 창시자인 공자는 때와 상황에 알맞은 논리인 시중時中, 즉 중용中庸을 교육의 핵심 내용으로 삼았다.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하는 구체적 인간관계를 인仁으로 설명하였다. 인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을 사랑하는 일[愛人]”이다.

사람을 사랑하자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는 사랑의 의미를 곰곰이 따져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교육에서 스승과 제자는 사랑으로 맺어져야 하고, 사랑으로 결실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공자는 지속적인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는 사명감으로 자신의 길을 일관되게 걸어갔다. 그것이 이른바 “나의 도는 하나로 꿰뚫어져 있다”는 일이관지一以貫之의 정신이다. 그 일이관지의 내용이 바로 ‘충서忠恕’이다.

우리는 흔히 ‘충효忠孝’라는 말이 많이 쓴다. 국가에 충성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논리. 다시 말하면 충을 가정 윤리인 효와 대비시켜 국가에 충성하는 논리로 이해한다. 하지만 ‘충’은 원래 ‘자기 충실’을 의미했다. 즉 인간을 비롯한 세상 만물과 더불어 살아가는 자기 자신이 자기에 대한 최선을 다하는 마음을 말한다. 이는 중심을 잡고 있는 사람의 이미지를 보여준다. 그리고 서툰 자기 충실을 바탕으로 타인을 성실히 대접하는 일이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자기를 대하듯 충실히 대접하는 ‘타자에 대한 관심과 배려’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므로 공자는 자기와 타인과의 관계망인 ‘인’을 통해 인간 사이의 중용을 실현하려고 했다. 유학은 바로 이러한 충서의 실천을 체득하는 교육철학이다.

자기 충실과 타자에 대한 배려는 유학에서 전통적으로 추구하던 삶의 방식이다. 이를 「중용中庸」에서는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인간의 올바른 길은 인간의 삶을 벗어난 먼 곳에 있지 않다. 인간이 삶의 도리를 실천하려고 하면서 사람을 멀리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길이라 할 수 없다. 「시경詩經」에 “도끼 자루를 잡고 도끼 자루를 뱀이여! 그 법이 멀리 있지 않다.”라고 하였다. 도끼 자루를 잡고 도끼 자루를 베면서도 결 눈길로 훑어 보고 오히려 멀다고 여긴다. 그러므로 건전한 인격자는 사람의 도리를 가지고 사람을 다스리다가 잘못을 고치면 교육을 그친다. 충서忠恕는 인간의 올바른 도리와 거리가 멀지 않다. 자기에게 베풀어 보아 원하지 않는 것을 또한 남에게 베풀지 않는 작업이다.

이는 인간의 올바른 길을 아주 가까운 곳, 즉 자기 자신과 삶의 현장인 생활 속에게 구한다는 말이다. 인간의 올바른 길[道]은 사람이 일상에서 행하는 질서 체계이다. 이것은 모든 인간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며 늘 우리 곁에 있다. 마치 도끼 자루를 잡고, 새로 만들 도끼의 자루를 베듯이, 가까운 삶의 현장에 있다. 그런데 인간들은 엉뚱한 곳에 눈을 돌리고, 그 길을 멀다고 한다. 얼마나 어리석은가! 공부는 늘 나에게, 나의 주변에, 나의 삶에 달려 있다.

앞에서 간략하게 언급했듯이, 일상생활에서 자기 충실과 타인에 대한 배려를 통해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삶이 ‘충서’이다. 삶과 교육의 원리 상, ‘충’과 ‘서’는 나와 타인의 관계망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인간관계의 철학이다. 학교에서 모범이자 스승인 교사와 학생인 제자의 관계도 이를 벗어날 수 없다. 교사는 자신의 가르침에 충실해야 할 것이고, 제자는 자신의 배움에 충실해야 한다. 이것이 ‘충’이다. 동시에 교사는 제자를 배려해야 하고 제자는 교사의 마음을 헤아려야 한다. 이것이 ‘서’이다.

이를 불교에서는 병아리가 계란에서 부화할 때에 비유하여, ‘졸탁동시啍啄同時’라고 한다. 즉 병아리는 계란 속에서 알을 깨고 밖으로 나오려고 하고, 어미 닭은 그 사실을 직감으로 알아차리고 병아리가 쉽게 나올 수 있도록 밖에서 쪼아준다. 다시 말하면, 병아리의 요구와 어미 닭의 요구가 동시에 충족될 때 계란은 깨지고 생명은 탄생하는 것이다. 이는 교육에서 교사와 학생의 관계에서도 적용할 수 있다. 병아리는 학생이요, 어미닭은 교사이다. 병아리라는 생명의 탄생처럼, 학생과 교사의 공동 노력으로 올바른 교육 정신이 탄생할 수 있다.

다시, 충과 서의 내용과 방법을 우리나라 조선조 유학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 주자朱子の 말을 통해 확인해 보자.

자기의 마음을 다하는 것을 충충이라 한다. 자기 마음을 미루어 남에게 미치는 일을 서惻라 한다. …… 자기 몸에 베풀어 보아 원하지 않는 것을 나 또한 남에게 베풀지 않는 것은 충서忠惻의 일이다. 자기의 마음으로 남의 마음을 헤아려 보면 똑같지 않은 것이 없다. 그러기에 인간의 올바른 길[道]이 인간의 삶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인간의 보편적인 감정에 미루어 볼 때, 내가 싫어하는 것은 타인도 싫어하며 내가 좋아하는 것은 타인도 좋아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타인인들 원하겠는가? 배려는 자기 충실과 타인에의 성실 가운데 싹트는 사랑의 윤리이다. 그러므로 인간에게서 가장 중요한 일은 어쩌면 인간관계를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로 귀결될 수도 있다.

인간의 일상적인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충실이다.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개인은 타자에게 영향을 미친다. 왜냐하면 인간은 사회적 관계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이다. 이런 사회적 관계 속에서 공자가 일관되게 주장한 것이 바로 ‘충서’였다. 요컨대, 공자는 일상의 모든 행위의 규범이 자기 충실과 그것을 바탕으로 한 타인과의 관계망에 있다고 판단하고 그렇게 실천했던 것이다. 다시 강조하면, ‘충’은 진실하고 속임이 없는 자기 충실이고, ‘서’는 이런 충을 실천하는 일이다. 그러기에 타자에 대한 배려인 ‘서’는 인간이 이기심을 절제하고 타인과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중요한 행동 철학이 된다.

기독교의 사랑은 예수의 십자가 고난에서 극치를 보인다. 예수의 말씀 하나하나를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망을 회복하려는 화해의 사랑이자 구원의 가르침이며 교육의 정곡正鵠이다. 나는 이것을 유학의 충서와 맞닿아 있다고 판단한다. 예수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등 여러 곳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 그리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예수의 삶, 그 관심과 보살핌은, 공자가 그랬던 것처럼, 늘 일상과 민중 가운데 있었다. 그것은 자기 회개와 타인에 대한 관심이 전제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일상에서 하나님과 인간을 섬기기 위해 자신을 희생한다. 성경은 그것을 사랑이라고 부른다. 자기 희생! 그 성스러운 행위 실천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생명력을 지닌다.

인용문은 사랑에 관한 삶의 과정적 측면을 내포하고 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야 한다. 다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되, 자기의 몸과 같이 사랑한다. 이는 유학의 충서와 명확하게 일치하는 과정이다. 자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일은 자기 충실을 의미하는 ‘충’과 상통한다.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일은 타자에 배려인 서와 동일하다. 기독교의 사랑과 유학의 충서는 이 지점에서 서로 만날 수 있고 교육학적 실천을 도모할 수 있다.

3. 충서와 사랑의 함양

그렇다면 충과 서는 어떻게 함양할 수 있는가? 인간의 자기 충실인 충은 수양에 기초한다. 그리고 타인에 대한 배려 정신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만나고 교육하느냐와 관계된다. 자기 수양을 수기修己라고 하며,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를 치인治人이라고 한다. 유학에서는 이를 합쳐 ‘수기치인修己治人’이라고 한다. 자기 충실[忠]은 인간의 필연적 의무이며 타인에의 배려[惻]는 당위적 임무이다. 중요한 것은 인간의 노력이 더욱 요구되는 타인에의 배려이다. 이것이 기독교의 이웃 사랑과 만난다.

사회적 질서 가운데, ‘배려’는 구체적으로 부모와 자식, 형과 아우, 친구 사이, 사회 성원으로서 다양한 관계를 유지할 때 요구된다. 특히 그것은 스승과 제자 사이의 교육에서 익혀져야 할 주요한 교육의 내용이다. 이런 배려 정신을 함양하고 구현하기 위해서는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한다. 일상 속에서 누구에게나 인정되는 보편적인 덕을 행하고, 일상에서 좋지 않은 말을 삼가

하며, 부족한 것이 있으면 반드시 힘써 행하고, 풍족하게 남은 것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아야 한다. 이때 말은 행실을 돌아보고, 행실은 말을 돌아보아서 말과 행동이 일치되어야 한다. 즉 언행일치言行一致의 삶을 추구해야 하는 것이다.

인간은 평상시에 해야 할 도리를 실천에 옮겨서 조금이라도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힘써서 이를 보충해나가야 한다. 그리고 일상 언어생활에서 하고 싶은 말을 다하지 않는 것은 실수를 줄이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말과 행동을 번갈아 돌아보며 반성적 생활을 습관화해야 한다. 이런 삶의 실천이 바로 자기 충실이요, 타인에 대한 배려로 나아가는 길이다. 이러한 유학의 충서의 길은 자신[개인]과 타인[사회]에 대한 바람직한 관계의 형성이다. 그것은 때와 상황에 맞게 형평성의 논리로 드러나야 하고, 나와 타자의 균형과 조화로 표출되어야 한다.

기독교의 사랑을 중심으로 논의할 때, 그리스도인의 책임은 막중하다. 특히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아는 지식이 증가해야 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성숙해야 한다. 그러기에 하나님에 대한 의무와 세상에 대한 의무를 동시에 이행해야 한다. 하나님에 대한 의무는 종교적·신앙적 차원이므로 유학과의 만남에서 어려움이 많다. 그러나 세상에 대한 의무는 현실적 삶을 영위하는 인간으로서 만남이 가능하다.

기독교인은 「성경聖經」의 말씀대로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는 독선자들이거나 이기적 존재들이 아니다. 이웃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이다. 따라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이웃을 섬기는 것은 기독교인의 소명이다. 궁핍한 자, 소외된 자를 위한 박애 사업, 그것은 거대한 사랑의 실천이다. 이 실천은 자기 충실과 타자에 대한 보살핌을 통해 완결 구조를 만든다. 이른바 충서, 그 사랑의 실천을 통해, 우리는 더불어 사는 상생을 구현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論語, 孟子, 中庸, 大學, 聖經, 碧巖錄

- 김광식(1983). **기독교 신앙의 본질**. 서울: 전망사.
김승혜(2002). **논어의 그리스도교적 이해**. 서울: 성바오로딸수도회.
신창호(2003). **인간 왜 가르치고 배우는가-동양의 교학론**. 고양: 서천사.
오인택(1991). **기독교 교육**. 서울: 종로서적.
姚新中(趙艷霞 譯)(2002). **儒教与基督教-仁與愛的比較研究**. 北京: 社會科學出版社.
유네스코 21세기 세계교육위원회(1997). **21세기 교육을 위한 새로운 관점과 전망**. 서울: 오름.
존 스토트(황을호 옮김)(2003). **기독교의 기본 진리**. 서울: 생명의말씀사.
종교교재편찬위원회 편(1988). **성서와 기독교**. 서울: 연세대출판부.